

지면안내 02 총학생회, 대체로 긍정적 평가 받았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은 '소통' **보도**

03 캠퍼스 내 노동자 처우, '대학의 의지'가 최우선 **사회**

04 커스터마이징, 당신의 취향에 소비하세요 **문화**

08 아아- 들리나? 지금 바로 1990년대에 응답하라 **기획**

‘상상파크 개관식’ 성황리에 마무리



▲내빈들이 상상파크에서 정미영(C&C교육지원팀) 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본교 연구관 일대에서 '상상파크 개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훈 한성학원 이사장, 이상한 총장, 손정수 성북구청 부구청장 등 교내·외 인사가 참석했으며, 행사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리셉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 ▲개식사 ▲내빈소개 ▲현황 보고 ▲환영사 ▲축사 ▲HSU 창의융합교육 소개 ▲상상파크 개관 공로패 수여 ▲상상파크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영사에서 이상한 총장은 "본교의 많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트랙을 선택했다. 상상파크는 이같이 융합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적합한 공간"이라며 "향후 AI와 스마트팩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약

200평의 공간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케이크 커팅식 ▲상상파크 체험으로 꾸며졌다.

한편, 상상파크는 본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첨단실습 교육프로그램 및 창의융합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된 복합교육공간이다. 이는 연구관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총 3개의 층에 달하는 연면적 400평 규모로, 각 층별 ▲VR·AR 실습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및 디자인씽킹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2층에 갖춰진 'VR·AR 실습 공간'은 ▲모션 트래킹 스튜디오 ▲VR·AR 멀티 스튜디오 ▲VR·AR 시뮬레이터 존으로 이뤄져 있어, 학생들이 VR·AR 관련 콘텐츠를

체험·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하 1층에 구축된 '메이커스페이스'에는 3D프린팅 출력물 후가공 공간인 '핸드크래프트 룸', 첨단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머신룸'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조성됐다. 지상 1층에 위치한 '메이커스페이스' 및 디자인씽킹 공간에는 다목적실인 'C&C 멀티 스튜디오', 학생들의 전시 공간 겸 브레인스토밍 공간인 '오픈 스튜디오', 시연회와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는 '상상 라운지'로 꾸며졌다.

이 총장은 "상상파크를 통해 학생과 사회가 원하는 융합교육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2020학년도 수시 고사 마무리... "입시 공정성 확보 위해 노력"

지난 11월 3일에 진행된 실기고사를 끝으로 적성·면접·실기고사를 비롯한 본교 수시 고사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입시를 담당할 입학관리팀은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여 노력했다"는 한편, "향후 입시 역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수시 원서접수 결과, 올해 우리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11.25대 1로 집계됐다. 전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특기자[뷰티] 전형으로, 38.25대 1을 기록했다. 뒤이어 ▲실기우수자(21.70대 1) ▲적성우수자(17.79대 1) ▲특성학교교졸업자(14.57대 1) 전형이 차례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중 상상관 및 탐구관 등지에서 실시된 ▲적성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에는 총 9,229명의 예비 한성인이 응시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편, 이번 고사에서는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총 7건의 부정행위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오진형(입학관리팀) 팀장은 "유형별 처리원칙에 의거해 전 과정을 공정관리위원회의 참여·관리하에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입학관리팀은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입시에 임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입시에 대해 전민우(입학관리팀) 차장은 "수험생들은 대학입학이라는 인생의 큰 목표를 향해 초·중·고 12년 가량을 매진해 온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 고사는 긴장의 연속"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편입학교사와 정시 신입학교사에서 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기자사령

퇴수습기자 여승규(인문 1)

동정란

김효용(ICT디자인학부) 교수

김 교수는 지난 10월 19일 중국 난창시에서 개최된 '2019 세계 VR산업 컨퍼런스(2019 World Conference on VR Industry)'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김영아(교양영어교육과정) 교수

김 교수는 논문 "오셀로와 우리 시대의 인종과 인종주의(Shakespeare Review Vol. 55 No. 1)"로 2019년 한국세익스피어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상한 편집인경주안 나은미 편집국장 장선아 디자인 (주)나눔 커뮤니케이션

<> ⌂ ↻
☰ ☆

〈한성대신문〉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hansungnews.com>



그외에도 〈한성대신문〉을 더욱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  **페이스북 페이지**
[@hansungpresscenter](https://www.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https://open.kakao.com/@hansungnews)
-  **에브리타임 학교 소식**
 '한성대신문사'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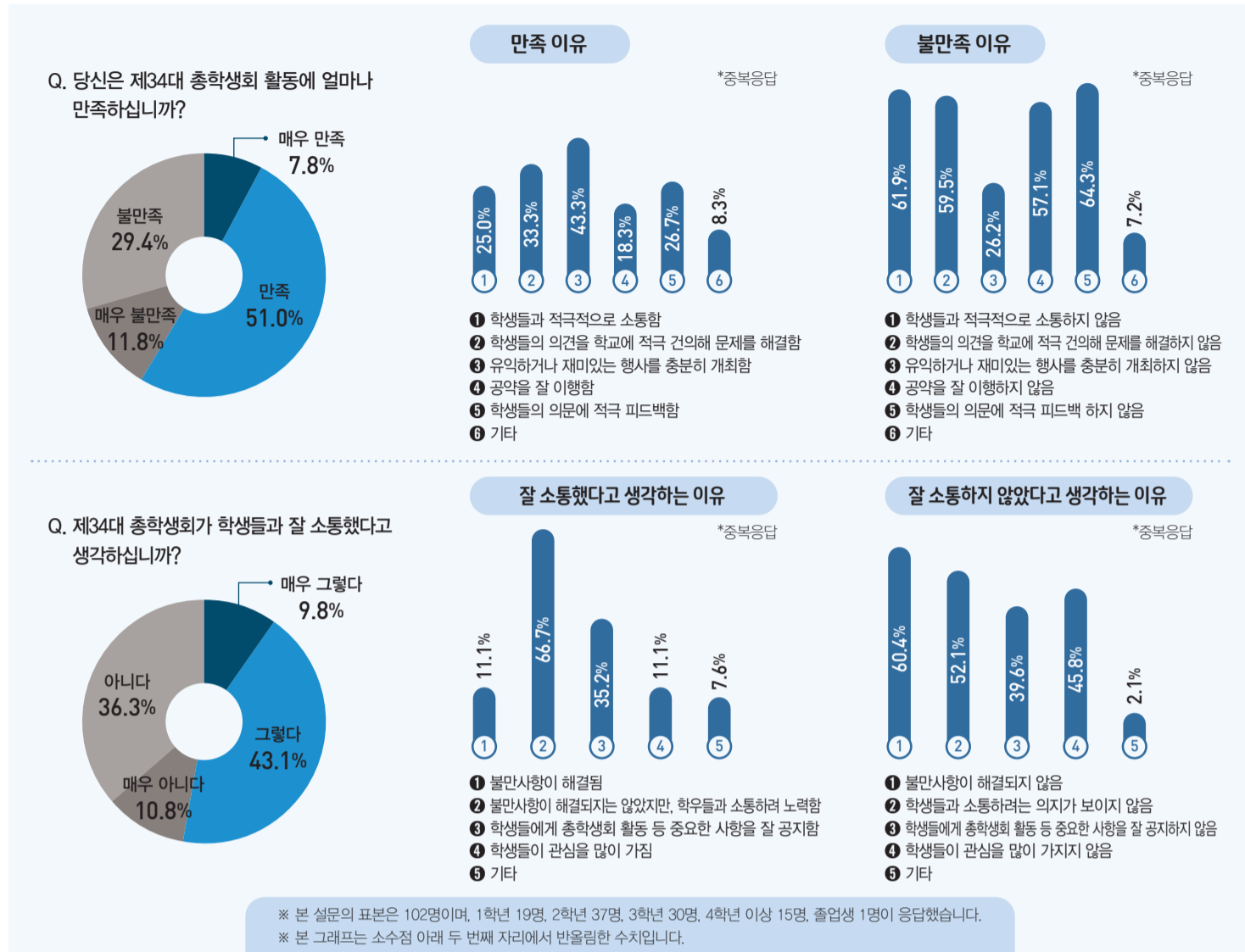


총학생회, 대체로 긍정적 평가 받았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은 '소통'

본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 까지 학생들이 제34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고, 총학에 어떤 것들을 바라는지 알아 보기 위해 '총학 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참여자의 과반이 총학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소통 측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호재(무억 4) 총학생회장은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온 것은 이전보다 학우들의 관심이 늘어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더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를 믿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통과 공약 이행, 대체로 만족해
우선, '총학의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는 응답자의 58.8%가 긍정적인 답변을, 41.2%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유익하거나 재미있는 행사를 충분히 개최함(4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학생들이 가지는 의문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지 않음(64.3%)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음(61.9%)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총학이 학생들과 잘 소통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는 '소통을 잘했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 '소통을 잘했다'의 이유로는 '불만사항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함(66.7%)'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소통을 잘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들은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음(60.4%)'과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52.1%)'에 가장 많은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SNS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으나, 문제 해결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싶지 않았다"며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학우들의 실망감만 커질 것 같아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학우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따라 채감하는 소통의 정도가 다른 것 같다"며 "페이스북에 피드백과 공지를 많이 올린 것에 비해 에브리타임에는 피드백을 적게 했다. 에브리타임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피드백을 꼭 에브리타임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에브리타임에 피드백이 적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총학이 공약을 잘 이행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4.9%가 긍정적으로, 45.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부분에서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이행했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적으로 답한 학우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이행했기 때문(46.4%)'임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부정적인 답을 한 학우들은 그 이유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63%)'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다. 정 회장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에 대해 "학내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공약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남학생 휴게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원인인 듯하다"며 "남학생 휴게실 문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총학과 차기 총학, 그들이 가야 할 방향
한편, 설문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총학에 바라는 점에 대해, "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 회장은 "학우들과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총학생회장 취임 당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 가지 공약을 가져왔다. 그런데 약속한 것들을 모두 지키지 못해 학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남은 임기 동안 세부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회장은 소통과 수권권 문제를 위주로 차기 총학에게 인수인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우들에게 얼굴을 자주 비춰야 한다고 본다. 또, 학사제도 변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권권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기 총학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학우들이 총학을 더 믿어주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학우 한 명 한 명의 관심은 학생회에 큰 힘이 된다. 믿음직한 총학이 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할 테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도 하반기 제2차 대의원총회 개최

지난달 22일, 미래관 DLC에서 '학생회칙 개정'을 안건으로 '2019년도 하반기 제2차 대의원총회'가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는 대의원 64명이 전원 참석했고, 상정된 안건 모두 95%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 가결됐다. 먼저, 제3장 '대의원총회'와 제4장 '상임위원회'에 명시된 대의원 및 상임위원의 선출방식이 변경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각 학과의 학년별로 선출하던 방식을 각 트랙별로 선출하도록 바꿨다.

또한, 대의원의 경우 트랙이 확정되지 않은 1학년에는 대의원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대의원은 6명으로 구성 및 학부 내에서 선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 시행 세칙'의 제2장 제20조(감사 시행 세칙) 7항에서는 예산 규모 제한의 제외 범위를 '인준받은 학생회'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기구들의 유동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통사업 이외의 경우

8항에 해당할 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한다'를 골자로 한 9항을 신설했다. '선거 시행 세칙'의 제5장 제25조(투표일과 투표 시간)에는 투표 예비일 기준이 마련돼, 모호한 경우의 수를 없앴다. 더불어 투표 시작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 30분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날 개정된 학생회칙은 부칙에 의거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상상산업 청년마당 취업 멘토링데이' 성료

지난 10월 29일, 상상관에서 '상상산업 청년마당 취업 멘토링데이(이하 멘토링데이)'가 개최됐다. 멘토링데이는 서울시가 주관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으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상상관 지하 1층의 '포트폴리오 리뷰관'과 지상 1층의 ▲취업·직무 멘토링관 ▲상상관 ▲부대행사관에서 진행됐다. 먼저, 포트폴리오 리뷰관에서는 ▲특수효과

▲디자인 ▲만화 ▲애니 분야 전문가의 1대 1 포트폴리오 컨설팅이 이뤄졌다. 취업·직무 멘토링관에서는 ▲게임 ▲애니메이션 ▲VR 등 콘텐츠 분야 22개 기업이 참가해, 학생들이 현직자와 면담하며 직무 및 채용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상상관에서 진행된 '상상산업강연'에는 웹툰작가 미티(홍승표)와 김상균(ITBC 글로벌사업팀) 팀장이 초청돼 각각 콘텐츠 분야의 '진로'와 '산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에서는

▲취업서류 컨설팅 ▲면접이미지 컨설팅 ▲타로카드 취업운세를 받을 수 있는 부대행사관이 운영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하동우(CT2) 학생은 "취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는데, 멘토링데이 행사에서 실무자에게 멘토링을 받으며 취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돼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상상나래 진로·취업 프레젠테이션 대회' 열려

지난달 30일, 미래관 DLC에서 취업지원팀이 '상상나래 진로·취업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진로·취업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지원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회다. 행사는 크게 ▲프레젠테이션 발표 ▲진로상담부 직업상담사의 피드백 및 청중평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당일 행사에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본선에 오른 학생 6명이

자리해 1·2학년은 진로를, 3·4학년은 취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본교 진로상담부 직업상담사 2명의 피드백과 청중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심사는 경험 및 목표의 구체성·독창성·논리력을 고려해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을 선정한 뒤 경력개발장학금 및 상장을 수여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보경(인문 4) 학생은 "대학생활 중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픈 마음에 참여했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한편, 행사를 담당한 조보경(취업지원팀) 담당자는 "이 행사는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본인의 꿈을 발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천의 힘을 얻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현경 기자
dksgusrud24@naver.com

'한성 모교방문의 날' 행사 진행돼

지난 11월 1일, 낙산관 대강당과 잔디광장에서 '한성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는 본교 상상파크 개관을 기념해 동문들에게 학교의 발전된 모습과 비전을 보여주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동문 관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종훈 한성학원 이사장, 이상한 총장, 권혁은(경영 83) 총동문회장, 엄미숙(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명예교수를 비롯한 교내 인사와 본교 동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개회사 ▲동영상 상영 ▲축사 ▲감사패수여 ▲환영사 ▲상상파크 소개 순으로 이뤄졌다. 축사에서 김우연(생활미술 73) 동문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된 학교를 보니 기쁘다. 모교를 위해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2부 행사는 ▲리셉션 ▲취폐 및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축하공연에는 교내 댄스 동아리 'NOD'와 버스킹동아리 '4호선 마이크'가 공연을 선보여 행사를 꾸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한필(무역 84) 동문은 "학교가 동문들을 학교로 불러 이같은 행사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준비하기) 쉽지 않은 행사임에도 모교방문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캠퍼스 내 노동자 처우, '대학의 의지'가 최우선

지난 8월,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 지하 1층 휴게실에서 6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평소 앓던 지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열악한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청소·경비·시설 등 육체노동자와 비정규직 조교를 비롯한 '대학 내 노동자'의 처우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올 9월 국공립대 조교 노동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캠퍼스 안 노동자의 현실

대학 내 노동자 처우가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노조)가 서울 소재 14개 대학의 육체노동자 휴게실을 조사한 결과, 53%가량이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하 휴게실은 기계실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 휴게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으며, 냉난방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아예 휴게실이 없는 건물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손승환(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지부장은 "한국에는 '건물을 신축할 때 육체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대학들은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계단 밑, 지하, 창고에 휴게실을 마련해 놓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처우에 관한 문제는 '급여'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학은 한 명의 육체노동자에게 매달 약 23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는데, 이는 기본급 174만원과 4대보험 등 각종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손 지부장은 "만약 노동자 30명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1년에 12~13억 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에 청소도구와 재료를 더하면 금액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정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맡기는 '간접 고용'을 채택하고 있다. 외부 용역업체는 학교와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기간 내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대한 낮추다 보니 근무환경은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산업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 주체 역시 모호한 상황이다.

대학 내 노동자 처우 문제가 비단 육체노동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학원생 조교를 포함한 비정규직 조교 역시 처우 문제를 앓고 있다. 노동의 댓가가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 특성상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구를 병행한다는 이유로 노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일할 기회를 잃고, 연구 외적인 업무를 도맡는 등 교수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대로라면 2년 단위로 계약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23개월만 근무하게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막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슬아(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은 "수업조교나 연구조교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지급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교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 등 근로자에 대해 보장해야 할 것이 늘어나 대학들이 직접 고용을 꺼려한다"고 채용 배경을 분석했다.

이전에 '대학의 의지'가 선행돼야

올해 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대학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산하의 '대학원생 119'를 조직했다. 뒤이어 지난 8월에는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육체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비정규직 처우 현황을 대학역량진단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왕복근(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교육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향후 대학평가 지표에



▲지난 8월 28일, 전국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대병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함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예산지원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지부장은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 예산의 다양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대학들이 향후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동자들의 처우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작 대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를 위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이 처우 문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전적

으로 맡기는 행태에서 벗어나, 이를 직접 책임질 것이 요구된다. 손 지부장은 "원청인 학교가 처우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청인 용역업체가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도구나 장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학교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교 처우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지난해 3월 '이공계대학원생들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이 발효됐다. 이공계지원법이란 정부에서 발

주하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4대보험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같은 맥락으로 올 9월 국공립대 조교 노동조합이 출범해 조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촉진할 전망이다. 이공계지원법에 대해 구 지부장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며 학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과연 대학 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흠치기'만 고집하는 기생형 언론, 해법 있나?

청년세대를 겨냥한 신생 온라인 언론 플랫폼이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들은 <위키트리>와 <인사이트>를 필두로 언론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이들은 SNS를 주무대로 삼아 여론을 수렴하는데, 독자적으로 취재하는 방식이 아닌 기생형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유통한다는 특징을 지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의 기사 중 필요한 정보만 모아준다'는 외피를 띄고 있지만, 타 언론사의 기사거리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언론을 '기생형 언론'이라 부른다. 기생형 언론은 기생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를 자극·선정적으로 재가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근거없는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언론사 특유의 논조가 없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체 기사 생산능력이 극히 떨어져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또한 기생형 언론은 대부분의 수익을

기업 홍보 연예인 홍보 기사로 얻기 때문에 기사의 주제 역시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실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인사이트>에 업로드된 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기업홍보성(26.5%) ▲연예인(26.3%) ▲인터넷가십(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생형 언론이 언론의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구(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생형 언론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재가공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며 "그러한 취재 관행이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해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생형 언론의 보도는 기생 언론의 정제된 정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시간을 들이지 않은 정보의 획득으로 언론 시장이 어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시형(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담당) 활동가는 "기생형 언론이 대중에게 선택받았다면, 기생 언론이 성실히 취재한 정보가 도태된다"면서 "노력 없이도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언론계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론적으로 기생형 언론의 비약적인 성장이 독자로 하여금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내 언론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기생형 언론에 법적인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규제가 이를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 여부는 언론 소비자인 독자의 태도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공 활동가는 기생형 언론의 전망에 대해 "갈수록 영향력을 늘려가는 기생형 언론에 대한 자·타율적 규제가 없으면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뒤이어 그는 "직접적으로는 '좋아요' 취소와 같은 불매운동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기생형 언론들이 주로 활동하는 SNS 기업의 정책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생형 언론의 행동원리가 SNS를 운영하는 기업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SNS기업의 정책에 대해 공 활동가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포함한 SNS에 꾸준히 규제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7사건 리고 지금

웹툰 불법복제, 변화 없는 '제자리걸음'

지난해 5월, 웹툰 불법복제 공유사이트 '밤토끼'가 운영자의 구속과 함께 폐쇄됐다. 이곳에 불법 복제된 작품은 총 3,955편으로, 이는 2003년 이후 제작된 한국 웹툰 누적 작품의 46%에 해당하는 숫자다. 최근 이와 같은 웹툰 불법복제 공유사이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작가들의 저작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불법 유통량 웹툰 시장 피해 규모는 9,939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웹툰 산업시장 규모가 같은 해 기준 3,799억 원으로 추산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월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신속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이하 대응단)을 신설했다.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의 모니터링과 심의, 유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응단은 인터넷 주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대체사이트'나 저작자가 권리 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에 대해 신고를 진행했다. 또한, 방심위는 이전부터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차단 조치를 ▲2013년 12건 ▲2014년 44건 ▲2015년 511건 ▲2016년 600건 ▲2017년 777건으로 증가시키다가, '밤토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2018년에는 2,338건의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는 작년 대비 3배 이상 크게 급증한 수치로, 방통위가 불법 공유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웹툰 불법복제 유통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웹툰 종합 사이트인 웹툰가이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불법 공유 사이트의 트래픽은 16억 건이었지만, 동년 4월의 트래픽은 15억 건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준혁(웹툰가이드) 팀장은 "작년 밤토끼 운영자 검거 이후 일시적으로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의 트래픽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소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URL을 변경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저작권법 개정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김유림(한국저작권보호원) 주임은 "누구나 손쉽게 불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저작권침해 예방 활동을 통해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마련이 강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현경 기자

dksgusrud24@naver.com



커스터마이징, 당신의 취향에 소비하세요

〈편집자주〉

시장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수많은 제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품의 대다수는 공장에서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대량생산되는데, 개성보다는 맛있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제품이 있다. 바로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이다. 영단어 'Customize(주문 제작하다)'에서 비롯된 커스터마이징은 개인의 취향이 가득 담긴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렇게 오직 나만의 취향을 저격하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기사를 주목해 보자.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과거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고안하는 과정을 거쳐 재료준비, 제작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는 손재주가 좋다는 이른바 '금손'의 전유물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핸드폰 튜닝'은 오직 금손의 손에서만 탄생했다. 이들은 스티커, 비즈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남들보다 화려하고 독특한 핸드폰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는 '깡손'은 감히 도전해보지 못할 미지의 영역이었다.

이같은 깡손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는 등장 초반, 주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주문제작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소비자가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 업체에 직접 방문해야 했고, 업체에 의뢰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더해 확인하고 제품을 받기까지 최소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건 덩이다.

그런데 최근, 커스터마이징이 IT 기술을 만나 언제 어디서든 클릭 몇 번이면 나만의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준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현대의 눈부신 기술적 발전이 이를 가능케 했다. 바야흐로 커스터마이징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소비자에게 기발하고 참신한 '나만의 제품'을 제공하며 진화한 것이다.

이들처럼, 신발 브랜드 '반스'는 홈페이지에 커스텀 카테고리별 별도로 구비했다. 여기에서는 기존 획일화된 디자인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과 패턴, 이미지, 소재 등을 고른 뒤, 해당 제품을 3D 모델을 통해 미리 볼 수 있다. 이후 간단한 결제 과정만 거치면 단 몇 분만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만나 볼 수 있다. 신발 커스터마이징을 경험해 본 길범호 팝 일러스트레이터는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은 바로 수정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3D로 구현된 가상의 커스텀 디자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의식주 산업 전반에도 IT 기술과

융합된 커스터마이징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량생산만 가능할거라 생각했던 가전제품은 어느새 모놀리thic을 통해 커스터마이징의 한 재료가 됐다. 그리하여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소재와 색을 고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가족 수, 식습관,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하게 됐다.

그렇다면 커스터마이징은 어떻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에 있다. 개인의 가치와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로 확산돼 개별맞춤 서비스가 성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커스터마이징이 타인과 다른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를 저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소비하는 '나심비(나+심리+가성비)'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비싼 가격이라도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지갑을 여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취향과 행복에 서슴없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이 교수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인 커스터마이징의 특성상, 여기에는 더 큰 비용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젊은 세대는 본인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준다면 기꺼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나만의 제품을 얻겠다는 심리가 크다"고 분석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내 세상

바야흐로 '개성'의 시대다. 각자 취향이 세분화되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하다. 과거 일부 마니아 사이에서 유행하던 커스터마이징은 현재 새로운 것에 목마른 대중에게 나만 알고 싶은 비밀병기, '인싸템'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의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어느새 우리 곁에 '필수템'으로 자리한 에어팟부터 '이게 가능해?'라는 의문마저 들게 하는 주거공간까지... '나만의 세상'을 꾸미는 커스터마이징의 예시를 소개한다.



사진 제공 : 우드스터프디자인

취향을 담아내다

획일화된 흰색의 디자인만 볼 수 있었던 에어팟이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보라색으로 도색된 일명 '차우우 에어팟'이다. 그 후 해당 에어팟을 도색한 업체에는 한 달간 에어팟 도색 주문만 100여 건이 넘게 접수됐다. 이 명일(우드스터프디자인) 대표는 "커스텀 중 색이나 디자인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커스터마이징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에어팟의 커스터마이징 방법은 간단하다. 색, 유·무광 여부, 이니셜 등을 직접 조합해 업체에 맡기면 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전자기에 불과했던 에어팟은 나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퍼스널리티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사진 제공 : 파렘(PAFEM)

나만의 향을 입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향이 존재한다. 그중 마음에 드는 향을 찾기 힘들다면 이 또한 커스터마이징 해보는 게 어떨까. 향수 브랜드 '파렘'은 소비자가 어떤 향을 선호하는지 찾아준다. 이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사용할 계절, 분위기 등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3가지 향을 추천해준다. AI가 추천하는 향이라고 우습게 보면 곤란하다. 실제 추천받은 향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70% 이상이기 때문이다. '조말론' 역시 향수, 오일 등 2개 이상의 제품을 조합하면 이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게 무슨 향이냐" 물어본다면 한번 이렇게 대답해보자. "이거? 내 냄새야~"



여행의 경계를 넘다

사용자의 취향을 꼭꼭 눌러담은 IT 서비스도 눈에 띈다. 커스터마이징 여행 플랫폼 '트래블메이커'가 대표적인 예다. 이 플랫폼은 틀어 정해진 패키지 여행이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계획해야 하는 자유 여행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나만을 위한 여행을 제작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지, 예산, 일정, 인원 수, 가이드 스타일, 이동 수단 등 20가지의 여행 조건을 고르면 이를 분석해 나에게 적합한 여행을 제작하거나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의 관심도 덩달아 끌고 있어 실패 없는 여행을 꿈꾸는 사람에게 제격인 커스터마이징이다.



사진 제공 : 퍼즐 주택

나를 위한 공간

한정된 공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다면 어떨까. 허무맹랑한 꿈같은 이야기를 '퍼즐 주택'이 이뤄준다. 퍼즐 주택이란, 주택의 설계 단계에서 미리 세입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한된 공간을 퍼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주택을 뜻한다. 임대 주택이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구성하고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나만의 집'에 대한 로망을 가진 이에게 안성맞춤이다. 퍼즐 주택을 이용한다면 반려동물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끼리 모여 단지를 만들어 지낼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존중하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주거공간 역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이트루트(RightRoute) 신민정 대표

“바른 길은 이쪽입니다.”
 험난한 패션계에서 꿈을 향해 걸어가는 청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청년 디자이너의 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라이트루트(RightRoute)'다. 청년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곳의 대표는 20대 청년인 신민정(29) 씨다.
 라이트루트는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교육과 공간을 제공하고, 판매의 장도 마련해주는 기업이다. 라이트루트를 설립하기 전, 신 대표는 소위 말하는 '파워 블로거'였다. 평소 자취방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옷장'일 정도로 옷을 좋아한 탓에 옷 리뷰를 블로그에 올리는 활동을 했고, 이것이 쌓여 영향력 있는 블로거로 성장한 것이다. 신 대표는 파워 블로거가 되자 자신의 옷을 소개해달라는 신인 디자이너의 요청이 줄을 이었다고 회상했다.
 “자신의 브랜드를 새로 런칭한 디자이너들이 저를 찾곤 했어요. 꾸준히 패션 디자이너들의 옷을 소개하는 활동을 했는데, 어느날 문득 제가 전에 리뷰했던 한 브랜드를 찾아보니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브랜드를 6개월도 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는 패션업계의 취업시장이 크지 않아 취업이 쉽지 않고, 만약 취업을 한다 해도

노동착취를 당하는 등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는 것에서 기인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 디자이너들은 창업으로 눈을 돌리지만, 선부른 브랜드 런칭으로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 디자이너들의 고충을 알게 된 신 대표는 이들을 돕고 싶었다.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수요를 늘려야 하지만 이는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하나로 패션계의 문화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패션 디자이너들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였어요.”
 ‘패션 산업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자’는 의미의 라이트루트. 이를 위해 신 대표는 디자이너에게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디자이너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디자이너들이 '본인의 옷'을 직접 만들 수 있게끔 돕는 것이다.
 “디자이너들을 만나 꿈을 물어보면 '본인이 디자인한 옷이 출시되는 것'이라고 많이들 답하세요. 자신만의 옷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옷을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점은 선발 기준이 '절실함'이라는 것이다. 선발 과정에서 신 대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하고

싶은 것', '꿈'의 질문들을 통해 절실함의 정도를 가늠한다. 여기서 선발된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 프로젝트의 모든 교육을 통해 옷을 제작하게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닌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필요한 실무를 교육해요. 수강생들은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통해 컨셉 기획, 디자인, 패턴 작업, 샘플, MD 등 실제 패션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마친 후 성실하게 교육에 임한 수강생 5명을 선별해 옷을 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수강생이 런칭할 시 라이트루트는 촬영, 콘텐츠 제작, 의류 생산, 관리, 포장, 품질관리 등 디자인 외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 즉, 옷을 디자인하고 상품화되기까지 모든 비용을 라이트루트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신 1차 판매분까지만 라이트루트가 수익을 가져가고 2차 판매분부터는 판매 총액 중 20%의 수익을 디자이너에게 제공한다.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 프로젝트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라이트루트는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무시할 수 없는 디자이너의 옷을 런칭해주시기도 하지만, 이들을 새로운 프로젝트에 디자이너로 투입하기도 한다. 주로 기업이나 기관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한다.
 “3개월간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디자이너들의 강점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를 선발해 프로젝트에 투입하고는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청년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험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의 이력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신 대표에게 감사의 연락이 오기도 한다. 어떤 디자이너는 취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디자이너는 창업에 성공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신 대표는 일의 원동력을 얻는다.
 “저희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로 브랜드를 런칭한 뒤 지금까지 회사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계속요.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폐업하는 브랜드를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로 인해 브랜드를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 대표는 디자이너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간 대여 사업을 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창업을 하는 디자이너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를 키워냄과 동시에 청년 디자이너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청년 디자이너에게 창업 지원금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지원이 패션계의 열악한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옷을 만드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라이트루트 직원이 디자이너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디자이너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디자이너 실무 교육을 수료한 표예나 디자이너의 'RR SWEAT SHIRT NAVY'

학술정보관 창의학습공간

Learning Commons OPEN

2019년 10월 31일 OPEN
 토론과 협업을 위한 그룹별 학습 및 개인별 집중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창의학습공간 러닝커먼스(Learning Commons)가 학술정보관 3층에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뒤집어진 태풍의 판도,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지난 9월과 10월, 한반도 전역이 태풍으로 몸살을 앓았다.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3회 가장 발생했던 태풍이 올해에만 벌써 7회나 발생한 것이다. 이는 1959년 이후 60년 만에 최대 발생횟수다. 게다가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도 기존 7·8월에서 9월 이후로 늦춰져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강도 또한 기존에 비해 높았다. 그렇다면 왜 태풍은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이게 됐을까?

열대의 바다가 낳은 공포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태풍이 한반도에 북상해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수반된다. 그 첫 시작은 '열대성 저기압의 형성'이다.

열대성 저기압은 고온의 열대 해상에서 수분을 머금은 뜨거운 공기가 급상승 기류를 타 형성되는 기압이다.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된 후 수증기를 가득 포함한 공기가 상승해 구름을 만들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승 기류를 더 빠르게 만들어 태풍을 형성한다. 이후 전향력(지구의 자전에 의해 바람에 가해지는 힘)의 영향을 받은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크기를 최대한 넓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대부분의 태풍은 북서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다 세력을 잃고 소멸하게 된다.

저위도 지역의 공기순환 구조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도 태풍이 발생한다. 이에 박종길(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해양성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월별 이동방향. 한여름에는 서북방향을 향해 북상하지만, 가을철에는 점차 수축해 동북방향을 향해 북상한다.

소장은 "이때 태풍은 많은 에너지를 갖고 북상하며 지구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형성된 태풍은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지역에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달궂진 해수면과 함께 달라진 태풍

한편, 올해 한반도를 휩쓴 태풍은 매우 이례적인 양상을 띠었다. 발생 횟수가 잦은 것뿐만 아니라 발생 시기 역시 한여름에서 가을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태풍이 발생했던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주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을 꼽았다. 올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가을에도 태풍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또한 북태평양에 중심을 둔 아열대성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9월과 10월에 약해져, 태풍이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일본 쪽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에 대해 차동현(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상승은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와 라니냐(동태평양의 적도 지역에서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 생기는 이상현상)와 같은 기후변동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도 관련이 있다"며 "가을철 북쪽에서 남하한 차가운 공기가 태풍과 만나면 큰 기온 차에 의해 한반도에 강한 대기 불안정 상태가 형성된다. 이는 여름철 태풍보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태풍의 힘을 책임진 북서태평양 고기압

발생횟수와 시기 외에도 올해 태풍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 10월, 태풍의 평균 강도가 28m/s로 나타나 기존보다 더욱 높은 강도를 보였기 때문

이다. 이는 한여름에 세력이 크게 확장하고, 가을에는 세력이 크게 수축하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9월에도 세력을 잃지 않은 것에서 기인했다. 본래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의 영향으로 한여름철에는 남해안에서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를 원활하게 공급받는다. 통상적으로는 태풍이 동해 북부 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면의 마찰과 낮은 지표면의 온도로 인해 급격히 세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것에 더해,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증기가 공급되어 상륙 이후에도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차 교수는 "북서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해양 중 가장 온도가 높아 1년 내내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다보니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이 강도를

유지하면서 상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여름철에만 나타났던 인도 계절풍 '몬순'으로 인한 대류활동이 9월까지 활발했던 것도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에 한몫했다. 동아시아 부근에서 발달한 상승기류가 북서태평양의 고기압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수온이 상승한 탓에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와 일본 서남부에까지 확장됐다. 이에 따라 태풍의 이동경로가 우리나라를 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최근 30년간 평균적인 북서태평양 고기압 위치가 상당히 서북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11월 현재에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을철 태풍이 잇따라 증가할 가능성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소장은 최근 29년간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평균위치를 보았을 때, 향후 태풍의 발생과 이동경로가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차 교수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는 한, 가을철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한반도 상공의 제트기류가 약화됨에 따라, 태풍 발달을 방해하는 연직바람쉬어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피해도 점점 커질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수민 기자

ssf1228@naver.com



♀♂ 궁금한성(性)

체제와 이념, 그 발자국으로 남은 불평등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현대에 접어들어 명시적 계급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도래했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성(Gender)'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불평등 중에서 성 불평등은 유독 현대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성 불평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까?



먼저 인류의 시작이었던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남녀가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당시 그로 인한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학교 김은경(창의교양교육원) 교수는 이에 대해 "구석기 시대는 자연과 맹수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중요했던 시기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 성차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평등사회 내에서 집단의 통솔자와 신을 대신하는 사제가 등장했다. 발굴된 유물을 살펴보면 사제는 반드시 특정 성별만 독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중은 여성이 더 높았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부산 가덕도에서 출토된 조개팔찌를 한 여성의 인골이 있다. 조개팔찌는 신석기 사회에서 집단 통솔자나 사제가 착용했던 것으로, 인골의 주인이 집단 내 권위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산성이 증가하는 청동기 시대에

들어 사회에 계급과 차별이 생겨나고, 이 과정에서 성 불평등이 발생했다. 성 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에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전쟁과 같이농사(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사)의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이다. 기동력과 무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남성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여성은 주변적 역할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통솔권은 남성에게 집중된다. 정복전쟁을 통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등과 관직 역시 대부분 남성에게 돌아갔다. 신라는 삼국 중 유일하게 여왕이 존재했지만, 이는 왕이 될 수 있는 계급인 성골 중 남성이 없을 때만 가능했다. 기록을 보면 여성이 왕이 되는 것을 약점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비담의 난'이다. 선덕여왕 말기, 비담은 '여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선전을 내걸며 반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외에도 진성여왕의 오빠인 정강왕은 진성여왕을 후계자로 지목하며 '남성과 같은 골상'을 가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 그

자체로서는 왕이 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동과 재산 소유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보면, 주몽의 아내 소서노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당시 '가재(家財)'를 기울여 국가의 일을 도왔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그녀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고려시대에 들어 신화적 영역이 축소되고, 통치 이념으로 유교가 도입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또한, 고려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불교에서도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기 보다는 가정 내에서 부덕을 발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체로 남성이 왕과 관직을 독점했으며, 여성들은 삼국시대처럼 여왕이나 사제로 활동하기보다는 왕의 어머니 자격으로 섭정을 했다. 다만, 가정 내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의 혼인제도를 통해서도 이해 가능하다. 고려 후기 문신인 이곡이 원나라에 올린 공녀 폐지 상소문을 보면 "남자가 차라리 분가에서 따로 살지언정 여자는 집을 떠나지 않는 게 고려 풍속"이라고 언급

했는데, 이는 처가살이가 흔했던 당시 고려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한편,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며 '신유학'이 새로운 풍속을 만드는 기틀로 등장한다.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삼강(三綱)이라 불리는 '충·효·열'이 확립되는데, 이때 여성 규범도 강화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론적으로 하늘에 해당하는 남성이 땅인 여성 위에 군림해야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같은 기틀이 확립되며 조선시대 여성차별은 점점 심화됐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아예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 같은 양반 여성들은 예술 활동을 하기도 했고, 19세기 순조 즉위 후 대왕대비 정순왕후는 수렴정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며 "조선시대 여성이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큰 오해다. 양인 여성들의 경우 농사일이나 길쌈 등의 경제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 삼 학 송 ·

대학 민주화를 꽃 피울 그날까지

최근 대학가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총장직선제' 때문이다. 기존 수많은 대학이 간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해 왔지만, 최근 대학가의 동향을 보고 있다면 총장직선제가 하나의 시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총장직선제는 단어 그대로 학내 구성원이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많은 대학들이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2012년 교육부가 직선제 폐지를 추진한 뒤부터는 국·사립대학을 불문한 거의 모든 대학이 간선제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선제 쟁취를 위한 바람이 다시금 불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립대학 역시 이화여대를 필두로 성신여대, 상지대, 서울대 등이 총장직선제를 쟁취했다.

여기에서 학생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띈다. 지난 5월에는 국민대 총학생회장 이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였다. 국민대는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7월부터 총장선임규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숙명여대에서는 총학생회가 7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학생 3,000여 명의 의견을 모아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총학생회장은 결국 '무기한 노숙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단행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면, 총장직선제는 그저 일부 학생들의 작은 요구가 아닌 학내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사회와 재단의 힘이 막강한 사립대학에서 학생이 총장직선제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학내 정치에 관심 없는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은 물론, 대학 및 일부 교수들과의 마찰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사립대학이 법인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사회만이 총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학생사회는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총장직선제를 쟁취하려 한다.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총장직선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학생에게도 총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자 학내 민주화가 비로소 변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한편으로 일부 교원들의 투표와 이사회 의 최종 선택으로 선출된 총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의 관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학생들은 계속해서 대학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투쟁에서 학생들은 앞선 단식 투쟁, 노숙 농성 등의 '초강수'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시류의 한 가운데서 한성대학교의 학생사회는 놀라우리만큼 조용하다. 또한 본교는 오는 12월,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될 제10대 총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누군가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말했다. 과연 4년 뒤의 제11대 총장 선거, 또 그 이후의 총장 선거에서 한성대학교의 민주주의는 꽃 필 수 있을까. 그리하여 언젠가 한성대학교의 학내 민주화는 모두 만개할 수 있을까.

장선아 편집국장

■ 의화정

필자는 소위 X세대. 자유분방함과 공격적인 패션, 적극적인 문화향유가 특징이라고들 했다. 대학생 시절, TV에서 X세대 얘기가 나올 때면 아버지는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라며 혀를 끝끝 차곤 하셨다.

"비싼 것만 밝히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권위에 대항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사람들이 있어도 잡담을 해대고, 식사 자리에서 다리를 딱 꼬고 앉아있지." 이 말은 아버지가 아니라 2400년 전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고대 희랍 '핀대'들의 불만을 나중에 누군가가 선생의 이름을 빌려 썼다고 한다. 후세대의 반항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이런 뉘앙스의 글을 썼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오래 살며 많이 속아봐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다. 매사에 부정적이며 냉소적이다. 따뜻한 피를 가진 젊은이들과 달리 그들은 차갑다. 겁이 많아서다."

■ 기자수첩

기자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카페에서 자리를 비운 잠깐 사이 물건을 도난당한 것이다. 다행히 빠른 신고로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기에, 본인은 이를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저 해프닝으로 끝났을 사건이 당혹감과 상처로 가득한 사건으로 뒤바뀌었다. 바로 사람들이 기자에게 무심코 던진 말 때문이다.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기자에게는 "이 일은 그런 곳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운 '나'의 잘못"이라는 따가운 질책과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자"는 주변인들의 강요가 이어졌다. 말로만 들던 2차 가해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 상황에서 기자는 예상치 못한 질책에 당혹감을 느꼈고,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명 한 마디 못하는 바보가 됐다.

이것은 비단 기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

세대론과 '최강' 소비권력

악담의 포격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귀엽다. 세대론은 기본적으로 단절론이다. 무언가 자신의 세대와 다른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접근이다. 단절을 자주 강조하는 것은 동질감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같이 놀고 싶은데 안 놀아주니까 샘이 난 거다. 존중받고 싶은 욕망과 권위의식, 자신의 젊은 시절과 윗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피해의식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윗세대는 그저 젊은이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젊은 세대는 앉혀놓고 해대는 잔소리에 질려버려서 "노, 탕큐"하고 도망치고 싶은 거다. 자연의 섭리 같은 것이다.

최근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현재 대학생 나이인 Z세대에 대해 많은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세대론은 기성세대가 만든다. 그들에게 Z세대는 '나는 쇼핑

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바바라 크루거의 아포리즘처럼, 스마트 쇼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소비 세대다. 먹거리 배달앱 사용은 물론, '먹지도 못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관대한 소비자 집단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는 현재의 고객이자 미래의 결제자들이다. 그래서 '최강 소비권력'과 같은 수식어를 붙였다.

이런 세대론은 젊은이들을 소비자로 호명할 뿐 동질감에 대한 염원이 없다. 젊은이를 '무엇'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바로 그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다. 외부의 명명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젊은 세대에겐 '핀대'들이 동질감의 염원을 품고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김기홍(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상처받을 또 다른 '나'를 위해

실제로 최근 한 배우가 자택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일부에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합부로 집까지 따라간 것이 잘못"이라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고 질책했다. 처벌을 9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 대한 기사에는 "왜 그걸 참았을까요? 피해자가 더 이상하네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식의 2차 가해가 만연한 것이다.

피해자는 단어 그 자체로 피해를 본 사람을 의미하지만,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정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일을 당한 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는지 등, 수많은 문항을

통과해야만 사회는 비로소 그를 피해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가 인정한 피해자가 된 순간, 피해자의 마음은 이미 2차 가해로 난도질당한 뒤다.

지난 9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피해자는 이런 말을 했다.

"2차 가해로 나뉘려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나를 놓아달라."

어쩌면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피해 사실보다 그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일지 모른다. 우리에게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무수한 시도가 모인다면 언젠가 그들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 수 있지 않을까.

박희연 기자

읽으면 보이는 초성퀴즈

- ※ 이번 신문의 주요 키워드를 담은 초성퀴즈입니다.
- ※ 정답을 아시는 분은 11월 29일(금)까지 정답양식을 작성하여 한성대신문사 카카오톡 채널(@hansungnews)로 보내주세요.
- ※ 정답자 중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 ※ 추첨자께서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문항1. [2면] 정호재 총학생회장은 차기 총학에게 소통과 **시그기** 문제를 위주로 인수인계할 예정이다.

문항2. [3면] 웹툰 불법복제 공유사이트 **비트기**는 지난해 5월 운영자의 구속과 함께 폐쇄됐다.

문항3. [6면] 생산성이 증가하고 성 불평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대는?

답: **웃디기스디**

정답양식) 이름 / 학부 · 학과 · 제1트랙 / 학번 / 연락처 / 문항1 정답 / 문항2 정답 / 문항3 정답

지난 호 정답) ① 회계부분감사 ② 선박안전법 ③ 성적 표현

■ 낙산에 올라

당신은 당신의 순간과, 순간의 감정들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요즘 가장 대중적인 SNS 플랫폼을 떠올리라고 하면, 단연 '인스타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려야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데, 때문에 사람들은 소위 '인스타 감성'이라고 불리는 확일화된 감성으로 사진을 찍고 보정한다. 그리고 게시물이 받은 공감 및 댓글의 개수에 집착하곤 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평가에 얽매는 것이다.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순 없다. 다만 이렇게 SNS에 올리기 위한 결과물에 집착하는 것보다, 온전히 자신이 느끼는 '순간의 감정'에 집중해 보아야 한다. 발걸음 하는 장소의 좌표를 사진으로 담는 데에 애를 쓰는 만큼 우리 내면의 좌표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행복한 순간들을 모아 놓은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고, 이를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기록이라기보다는 치장에 가까운 타인의 게시물을 보고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럴 때일수록 내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단순히 오감으로 느끼는 '맛있다', '예쁘다'와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는 감정들을 언어로 풀어내 기록하는 것 말이다.

나는 나를 뒤늦게 느꼈던 순간의 감정들이 결국 망각을 통해 유실될 것에 종종 허무감을 느낀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나를 스쳐 지나갔던 감정들의 번지수에 언젠가 찾아갈 수 있도록 글로써 기록하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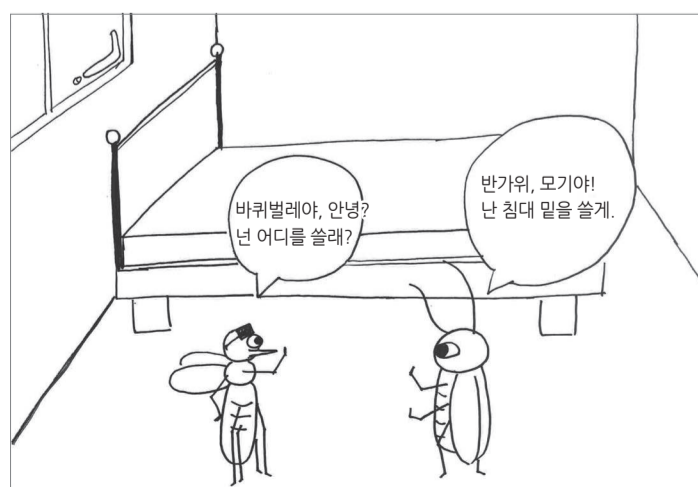
한다. 발설하지 않고 속으로만 품고 있는 감정들은 그만큼 무게를 지니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를 회고할 수 있게끔 글을 쓰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비교적 가벼운 것들을 기록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내면의 순간들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기록해야 한다. 혹여 확일화된 감성의 사진을 찍으며,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에 집착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다가 정작 행복을 느껴야 하는 찰나의 순간들을 무의미하게 지나 보내지 않았는가. 1차원적인 표현들을 불필요하게 과시하고, 정작 짚어보아야 할 내면은 무심하게 지나 보냈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현미(사회과학 1)

#낙산세컷_벌레도_알아보는_신축_기숙사

정영아 기자



이야기~ 들려나! 지금 바로 1990년대에 응답하라

세대 공감 프로젝트 '레트로'

〈편집자주〉
시대에 따라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지나간 트렌드는 점점 대중에게서 잊혀지고, 현재의 추억으로 남아 심심풀이 용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 않던가, 1990년대를 눈부시게 장식했던 문화가 다시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과거의 공간과 문화, 감성 속 때 묻은 촌스러움과 세련미까지 갖추고 말이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은 형태는 다를지라도 오락 업계, 패션 업계 등을 총망라진 넘나들고 있다.

'옛것'을 즐기는 레트로(Retro) 열풍이 힘(hep)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금, 그때 그 시절을 웃음 짓도록 만든 '90년대 레트로' 문화를 정 기자가 탈탈 털어봤다.
정수민 기자 sff122@naver.com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복고주의를 뜻하는 레트로(Retro), 레트로 열풍은 끊임없이 새 단장을 반복하면서, 그 인기도 쏙이 아지고 있다. IMF 위기 당시에는 가난과 사회적 격동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70~80년대 문화가 유행했고, 이는 2000년대 초반에 포크음악과 로큰롤을 비롯해 영화 〈친구〉, 〈클래식〉 등으로 시대를 관통하며 계속됐다. 그리고 2020년을 목전에 둔 지금, 이번에는 90년대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탐골공원'이란 별칭으로 화제가 된 유튜브 채널 〈SBS KPOP CLASSIC〉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채널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레트로 열풍이 벌어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플라마켓 행사도 개최됐다. 사진 속 플라마켓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한 레트로 컨셉 '도시상회'의 필름카메라 부스 모습이다.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상민 문화평론가는 "우리나라는 유행의 주기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즉, 과거 문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 전에도 급격히 문화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90년대 레트로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방송의 경우 모든 세대가 90년대 레트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JTBC 예능 〈캠핑클럽〉과 같이 당시대의 인기 스타를 재등장시키거나,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는 과거에 등장했던 문화의 모습을 영상으로 다시 감상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문화를 재창작하거나 재해석하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C통신과 휴대전화 보급이 시작한 1990년대 대중문화는 현재 대중문화의 원형과 가장 비슷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1020세대도 큰 진입 장벽 없이 90년대 감성으로 레트로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의 90년대 레트로 문화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에 대해 성 평론가는 "유투브를 통해 레트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그 열기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리메이크 작업을 비롯해 영화나 연극·뮤지컬, 게임, 만화 등 1990년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락부터 패션, 소품에 이르기까지... 넓어진 향유층만큼이나 각 업계도 90년대 레트로에 폭 빠져들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2019년에도 1990년대의 감성을 사적으로 꺼내보듯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됐다. 그중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90년대 레트로 문화를 소개한다.

90년대 레트로 열풍이 한창인 오락업계에서는 추억의 오락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킹 오브 파이터즈〉,



▲칭패션을 선보인 한솔임 씨. 연정 지켓과 연정 바지에 빨간 스카프를 매치해 포인트를 줬다.

〈슈퍼 마리오〉 등 각종 게임들이 재출시돼, 옛 이용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8비트 TV 게임기 등 게임스틱을 이용해 작동하는 레트로 게임도 인기다. 최신의 그래픽이나 사운드를 제공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것이 매력이다. 온라인으로 레트로 게임을 판매하는 서미석(키이우

의 레트로 게임 공간) 대표는 "최근 레트로 붐이 일면서 2000대의 판매율이 꾸준히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뭐니 뭐니 해도 유행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패션업계다. 90년대를 주름잡던 나팔바지와 딱북이 코트, 청청 패션 등이 다시 유행패션이 됐다. 이는 복고 감성을 추구하던 세련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평소 시도하기 어려웠던 핑크색의 컬러감 이 눈길을 끈다.

매일 SNS에 자신의 패션사진을 올리는 최예진(23) 씨는 "핑크 복고

같은 정감 있는 문구는 덤이다. 이에 대해 성 평론가는 "2030세대가 1990년대 문화가 활발히 이야기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지 고려하는 자세로 보인다"며 "모든 세대가 각각의 방식으로 90년대 레트로 문화를 향유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레트로 취향을 만들어나기엔 비관된다"고 전했다.

아기자기한 매력으로 보는 이의 수줍음을 유발하는 소품업계에도 90년대 레트로가 스며들었다. 과거 음료를 구매하면 지급되는 사은품이었던 유리컵이 이제는 한정판으로도 출시돼 별도로 판매되고 있다. 큼직한 단팔백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은 투박한 유리잔에 그 시절 익숙한 커피와 문양이 그려져 옛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세코피와 '쵸코렐유'

같은 정감 있는 문구는 덤이다. 이에 대해 성 평론가는 "2030세대가 1990년대 문화가 활발히 이야기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지 고려하는 자세로 보인다"며 "모든 세대가 각각의 방식으로 90년대 레트로 문화를 향유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레트로 취향을 만들어나기엔 비관된다"고 전했다.

같은 정감 있는 문구는 덤이다. 이에 대해 성 평론가는 "2030세대가 1990년대 문화가 활발히 이야기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지 고려하는 자세로 보인다"며 "모든 세대가 각각의 방식으로 90년대 레트로 문화를 향유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레트로 취향을 만들어나기엔 비관된다"고 전했다.

같은 정감 있는 문구는 덤이다. 이에 대해 성 평론가는 "2030세대가 1990년대 문화가 활발히 이야기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지 고려하는 자세로 보인다"며 "모든 세대가 각각의 방식으로 90년대 레트로 문화를 향유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레트로 취향을 만들어나기엔 비관된다"고 전했다.

촌스러운데 매력적이고, 낡았는데 세롭대!



▲재출시돼 판매된 8비트 게임기. 한 개의 게임 스틱과 두 개의 버튼으로도 수십 가지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컨셉에 맞춰 옷을 차려입은 후, 친구들과 사진을 남기는 것을 좋아한다. 청정 패션의 경우 청제킷과 청바지, 흰 티셔츠만으로도 쉽게 복고패션을 완성할 수 있어 즐겨 입는 편이며 "직접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옷을 따했다"라든가 "시대를 대표하는 옷을 따"라 입으면, 마치 나 자신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베' 요구르트와 '몰드'의 레트로컵. 배가 동그란 형태의 컵에 새겨진 글씨체가 맛을 더했다.

